

# 송진우의 국제지역 인식과 국가건설 사상

Song Chin-woo's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and Thoughts on State Building

문화와융합  
Culture & Convergence

p-ISSN 2950-9742

e-ISSN 2950-9750

2022-10-30

Vol.44 No.10 pp.00-00

DOI <https://doi.org/10.33645>

/cnc.2022.10.44.10.00

## 목차 TOC

1. 서론
2. 3.1운동시기: 미국에 대한 기대와 좌절
3. 1920-1930년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협력과 경계
4. 해방기: 서구 중심의 민주정체 도입 추구
5. 결론

양준석 Yang Joonseok

국민대학교 교수

Kookmin University

chirira@hanmail.net

##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일제시기부터 해방기 고하 송진우가 견지했던 국제지역 인식과 국가건설 사상을 1차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다. 송진우는 일본 유학시기 서구의 선진사상을 습득하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자강의 토대를 구축했다. 1919년 3.1운동시기 송진우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공감했으나, 미국과 서구에 의한 독립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송진우는 1920년대 “자주적 행동과 자력적 해결”의 독립방식을 중심으로 두고, 미국과 서구 질서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서구 질서의 정당성을 포착했다. 송진우는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립적 인식을 유지했으나, 독립을 위해서는 협력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종교와 정치를 따르기를 거부했지만,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고, 유럽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의 권리와 사상의 모태이지만, 아시아에 대한 확장적 정책을 경계했다. 송진우는 장기간 구축된 국제지역 인식에 기초해 해방 직후 서구적 민주정체 도입과 공산주의 정부수립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Song Chin-woo(宋鎭禹) learned the advanced ideas of the West while studying in Japan and laid the foundation for national self-reliance based on nationalism.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Song Chin-woo adhered to Wilson's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failed. Nevertheless, Song Chin-woo focused on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the 1920s and was wary of the American and Western order, simultaneously seizing that order's legitimacy. Song Chin-woo maintained a confrontational stance toward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but also expressed a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m in the interest of independence. He refused to follow China's religion and politics but emphasized friendly relations. He thought of Europe as a champ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ideas, but he was wary of its expansionary policies in Asia. Song Chin-woo insisted on establishing a Western democrac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based on longstand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while emphasizing the injustice of establishing a communist government.

## 주제어 Key Words

송진우, 일제시대,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미국

Song Chin-woo, Japanese rule, national self-determination, communism, United States

접수완료 2022-09-23

심사완료 2022-10-10

게재결정 2022-10-11

## 1. 서론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는 조선/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론적-실력배향론적-자강운동적 민족주의자에서 일제시기 문화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실력배향론적 자강운동가로 성장했고, 해방 후 서구형 자유민주주의국가 수립을 지향한 인물이었다(김학준, 1990: 194-197).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916년 중앙학교 학감이 되었고, 3.1운동에 앞장섰으며, 1921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1923년 조만식(曹晩植)과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했고,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창립, 1928년 문맹퇴치운동, 1931년 브나로드 운동 등을 전개하며 민족의 문화적 성장을 위해 힘썼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며 민족의 실력양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견지했던 송진우에 대한 평가는 보수주의에서 중도주의자로 일컬어지는 등 그에 대한 평가의 스펙트럼은 좁지 않다.

기존 연구는 송진우를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의 중심 인물로 실제적인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미군정에 다가가는 인물”(박태균, 1994:31)로 묘사한다. 또한 송진우, 김성수(金性洙), 장덕수(張德秀), 신익희(申翼熙), 조병옥(趙炳玉), 그리고 윤보선(尹潽善), 장면(張勉) 등 민주당-『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포괄하면서 초기 반독재투쟁과 4.19혁명의 중심지주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며, 송진우와 김성수에 초기 자유주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담론과 세력으로 자리잡았고, 급진 공산주의와 우파독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대안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박명림, 2016:86).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했다고 보기도 한다(박명수, 2020/01/15).

송진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자유와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고 해방 후 역사 발전 단계를 사회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파악하면서 전향적 사회관과 경제관을 가진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종은은 송진우가 무작정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 또는 온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다고 보았다(이종은, 2016:278). 또한 송진우는 균형있는 중도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 파악되기도 하며(윤덕영, 2015

:1-2), “정치적 노선으로 볼 때 온건 중도 노선의 지도자들에게는 설 땅이 없고 오히려 광야에 홀로 선 사람처럼 외롭게 소신을 지탱하다가 끝내 비운을 겪어야”(신복룡, 2017:84)했던 인물로 묘사된다.<sup>1)</sup> 로빈슨(Richard Robinson)은 “한미당을 이끌던 중도파의 거두 송진우가 흉탄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중도파의 입지가 약해졌음을 언급한다(리처드 로빈슨, 1988:77).

이러한 이념적 평가를 넘어서 송진우는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자’, ‘문화주의자’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의 민족적 관점은 민족 내부의 성찰과 자강에 집중한 것 이상에 민족과 세계적 흐름의 거대한 조망에 따라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덕영은 송진우가 서구 자유주의 사상이나 민주주의의 일방적 수용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적,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설립하려고 시도했고, 조선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제고함으로써 “근대 서구 민주 사상과 조선적인 것”의 결합을 이뤄내려 했다(윤덕영, 2016:38)고 평가했다.<sup>2)</sup>

1) 송진우의 개인적 특징에 대해서 1920-30년대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을 맡아 활동하던 유광렬(柳光烈)의 평가 구체적이다. 송진우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도 수천수만, 칭송하는 사람도 수천수만일 것으로 덕보다는 재가 많은 인물”로 보았다. 특히 논객으로서 편집인으로서, 문장가로서 모두 훌륭하지만, 특히 재정을 기초로 동아일보사의 경영을 확립시킨 부분을 강점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주장이 강해 상대를 내리 누르는 태도가 있음을 언급한다(유광렬, 삼천리, 1932/9/1). 채만식(蔡萬植)의 평가도 흥미로운데, 김성수와 송진우를 “김씨는 돈을 모으고, 송씨는 돈을 쓴다. 김씨는 군사적으로 얽 전하며 살림꾼으로 된 데 반하여 송씨는 외교적이며 수 호지식이다. 김씨는 군사적으로 공평한 데 반하여 송씨는 정치가적으로 다소 당파적이다”(채만식 1931)라고 비교한다. 고재욱(高在旭)은 “선생의 생애 55년은 일직선의 강직 그것이었다. 불의와의 타협을 몰랐고, 동요를 몰랐고, 더구나 굴종이란 선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휘였다. 실로 선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암흑기에 민중과 더불어 있으면서 낙망, 좌절이 일세를 휩쓰는 가운데서도 앞날을 똑바로 내다보고 굳게일학 같이 특립(特立)하여 항시 조국 광복의 등불을 밝힌 선각자”(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1965:3-4)라고 기록한다.

2) 송진우는 1925년 글에서 “우리는 구미의 자유정신과 과학문명을 애호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국을 도달하고 인혈을 흡취하는 만행은 어디까지든지 배척”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족적 자유, 생존, 평화를 3대 이상으로 꼽았다. 첫째로 민족적 자유를 해결할 것, 둘째는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할 것, 셋째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분명하게 언급했고, 이를 위해서 사상적 수련과 민족적 단결이 가장 시급함을 논했다(동아일보,

송진우에 대한 다층적 기존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자주에 기초한 송진우의 국제정세 인식을 국가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정리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3.1운동시기부터 해방기 송진우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이뤄놓은 송진우 연구와 1차문서들을 포괄하며, 송진우의 국제정세 인식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자료들 외에 새로운 자료들에 기초해 송진우가 견지한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유럽과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송진우의 민족주의적 자강인식이 어떻게 성장해갔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무력대립이 난립했던 시기 송진우의 국제정세 인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현재의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외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3.1운동시기: 미국에 대한 기대와 좌절

고하는 1910년 일본 유학을 시작해 와세다대학, 메이지대학 법학부에서 수학하며, 다이쇼정변이라 불리는 민주적 정당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1915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지광』에 “사상개혁론”을 발표했다. 그는 사상개혁론에서 “민주사상이 팽창하여 자치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조류 핵심”임을 강조하였고, 유교에 대해서 “공교(孔敎)는 배타사상의 표현이니 외족은 만이로 대우하며 타학은 이단으로 간주하여 독단론평과 망대사상으로 부락사회를 환성하며 암흑시대를 재현”(송진우, 1915)하려는 문명세계에 반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송진우는 유교사상 즉 봉건적 혈연질서와 특권인식의 타파였고, 대신 ‘국수 발휘’를 주장하여, 단군을 강조하며 민족의 구심점을 세웠다. 선진적 사상을 받아들인 송진우의 민족주의

1925/09/06). 이 내용은 민족에 대한 관점이 세계적 흐름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하는 송진우의 인식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조는 일본의 사상가들이 영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병합을 인정한 것에 대한 송진우적 해결방식이기도 한 것이었다(윤덕영, 1999:109-114). 특히, 서구의 선진적인 발전 방식과 민족 자강의 의지를 연결하는 송진우의 시도는 후에 기술될 소콜(Sokol) 운동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유학시기에 송진우의 서구인식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13년 송진우와 김성수는 부친을 동경에 초청하여, 일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송진우는 사실 일본의 문물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 설명하며 “그들의 창의로 된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은 다 대륙의 것이 아니면 서양의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 모두 단결력과 교육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김기주, 1997:507), 당시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구의 문물의 상대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수준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민족자결 원칙이 포함된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한 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독립열망은 거세게 확산됐다. 1918년 10월 송진우는 독립에 대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앙학교와 국내의 조직을 정비, 확대했으며 국외와 연락을 시도했다. 당시 이승만(李承晩)의 메시지가 여운홍(呂運弘)에 의해 송진우에게 전달됐는데,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이 구상한 민족자결론의 원칙에 기초된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하며, 미국의 한인들도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국내의 호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송진우는 국내 상황을 맡아서 진행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 연락을 당부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송진우 중심의 국내세력은 송진우가 교장을 맡고 있는 중앙학교 숙직실을 총본부로 하여 독립활동을 개시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 108-109).

당시 중앙학교 학생으로 송진우의 제자 임봉순(任鳳淳)에 관계된 기록에 따르면, “1918년 겨울, 중앙학교를 거점으로 무엇인가 심상하지 않은 움직임이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는 이 나라에 한 가닥 희망을 주었던 것

이다. 불면증으로 피곤해 보인 고하 선생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다 ... 머리 큰 학생들 사이에는 공개된 비밀로 차츰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하 선생은 각계에 손을 뻗쳐 빈틈없는 조직력을 강화해 갔다”(김학준, 1990:70)라고 고하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연계하고 있었다. 이러한 1918년의 장면에 따라 3.1운동을 이전하여 송진우는 미국의 독립운동세력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였고, 그 배경에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1월 윤치호(尹致昊)는 송진우와의 논의를 기록했는데, 송진우가 “국제연맹이 현실화될 것이며, 약소국에 자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국제연맹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고, “조선에도 자결권이 주어질 것이며, 만일 이런 이상적인 방안이 거부된다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할 것”임을 기록했다. 송진우의 입장에 대해 윤치호는 “위대한 이상들이 모두 그렇듯 국제연맹이 창설되어 활동하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문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열강도 조선 문제를 다루어서 일본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험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선을 독립시키라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15)라며, 송진우의 서구중심 인식을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송진우는 국제연맹이 창설되면 조선에 독립이 주어질 것이고, 일본이 반대한다면 미국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고, 이는 당시 다른 지도급의 인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윤치호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강대국도 조선 문제 제기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박지향, 2010:119). 이 내용은 당시 송진우가 견지한 세계정세의 미국적 흐름에 대한 굳은 신뢰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1920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의 반대로 미국이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한국문제에 적용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 이에 비해 윤치호는 세계정세 인식은 냉혹한 국제적 상황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2월 24일 송진우, 김성수, 현상윤(玄相允),

최남선(崔南善), 최린(崔麟) 등과 3.1운동의 절차를 논의했고,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 중 여섯째는 상해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 동지들과 협의하여,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구성되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129). 송진우는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1운동의 계획과 조직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초기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구속된 송진우는 이후 1년 반 가량 옥중에 수감되었다.

독립을 위해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송진우는 1920년대에 들어서며 국제정세를 대하는 변화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3.1운동 준비과정에서 깊게 관여해 체포되어 1년 7개월 복역한 송진우는 석방 후 1921년 『동아일보』 취임사에서 한민족의 냉정한 태도를 요청하며, “구주의 대란이 방식하고 평화의 서광의 발현하매 개조의 정신과 해방의 사조가 전 세계에 양일한 지라. 침울에 침울을 적(積)하고 고민에 고민을 가하여 암중에서 수색하고 미로에서 방황하던 우리 민족의 사상계가 소약한 원기를 경장하려하며 피곤한 신경을 항진하려하니 차에 순응하여 민중의 표현기관으로 본보가 탄생되리라. 이곳 천하의 동정이 집중된 까닭”(동아일보 1921/10/15)이라고 발언했다. 미국에 실망한 송진우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닌, 냉철하게 민족의 자강에 기초한 독립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 3. 1920-1930년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협력과 경계

#### 3.1. 미국: 미국식 질서의 기대 유지와 자본주의의 경계

1921년 송진우, 장덕수, 신구범(愼九範)은 9월 14일에 주식회사를 창립, 사장에 송진우, 부사장에 장덕수가 취임했다. 송진우는 취임 직후 국내 활동 뿐 아니라 특히, 9월 하와이 만국기자대회에 김동성(金東成)<sup>3)</sup>을 파견하는 등 국외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 미국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김동성은 1921년 10월 11일 개최된 만국기자대회에 참석했고, 부회장에 선출됐다.

다. 당시 동아일보사 자산은 겨우 5천여 원이었고, 2-3천원의 경비가 필요한 하와이에 기사를 특파한다는 것은 회사차원에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동아일보사의 주요 간부들은 하와이 파견에 반대했지만, 송진우는 강한 파견의지를 피력했다. 하와이에 파견된 김동성은 만국기자대회에서 부회장에 임명되었고, 이를 활용해 『동아일보』는 “아사(我社) 특파원 만국기자대회에서 부회장 당선”이라는 통지문을 발행, 축하광고를 모집하여 3만원의 광고수입을 얻었다. 이 시기를 “『동아일보』의 황금시대”로 평가하기도 한다(삼천리 1940/09/01). 물산장려운동, 『동아일보』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1923년 3월 송진우는 김성수와 상의하여 부사장 장덕수를 미국 특파원의 자격으로 유학 보냈고, 7월에는 ‘하와이 조선인 사정 강연회’를 개최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30). 3.1운동 후 미국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반한 독립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했음에도 송진우는 미국 중심적 독립방향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승만의 “자유와 단결”이라는 논설을 1924년 4월 23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고, 이를 통해 송진우와 이승만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자유가 본래 우리의 물건이니 남에게 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일어나 나아가 취할 필요가 있고,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며, 정의와 인도에 위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글에서 이승만은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이름으로 민족의 의견이 분산되는 행동들을 경계했다(이승만, 1924/04/23).

1925년 송진우는 하와이에 개최한 제1회 범태평양 회의에 참가했는데 이 회의 참가 후 작성된 국제정세에 대한 송진우의 기사는 1920년대 지식인이 견지한 국제정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당시 회의는 태평양에 속한 각 단체들이 모여 제1부에서는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예술, 제2부 경제와 상업문제, 제3부 인종과 인구문제, 제4부 정치문제를 토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초대됐고, 송진우, 신흥우(申興雨), 유억

겸(俞億兼), 김양수(金良洙), 미국에서는 서재필(徐載弼), 김활란(金活蘭)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6월 15일 미국 여객선 프레지던트윌슨의 선중 회의를 통해 첫째, 약소민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 둘째, 경제적 제국주의의 타파. 셋째, 각 민족의 국수적 교육을 타파하고, 인류 평등의 대원칙에 기본적 기본 원칙을 결정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58-261).

하와이에서도 이승만과 송진우의 관계는 계속되는데, 이승만은 송진우와 김성수가 받는 일본 경찰의 탄압을 걱정하며, “모든 고초를 당하는 것을 들 때마다 여러 동지들과 같이 당하지 못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함을 밝혔다. 송진우와 이승만은 송진우의 동경 유학 이래 15년만의 만남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졌고, 특히 우남은 하와이 활동을 제안했으나 고하는 국내문제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60). 이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도 등장하는데 송진우는 “이승만 박사를 처음 만나 망명제의를 받았으나 사양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할 것임을 천명”(권이혁, 2007:241-247)했다고 기록되었다.

이후 범태평양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인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던 송진우는 귀국 후 논설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실체를 조망하는 기고문을 작성한다.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0편으로 『동아일보』에 기고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는 송진우의 국제관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자료이다. 1편에서 조선은 “단군대황조 이후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4천년”이 반복되었지만,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져 본적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 했다. 조선이 멸망했다면 어떻게 문화가 보존되고, 혈통이 유지될 수 있는지 물으며, “미국의 민주공화당이 경쟁 교체하여 미국의 정권을 수수상전하는 동안에 혹은 공화당이 승리를 득하며 혹은 민주당이 실패에 귀하여도 누구든지 결코 미국자체의 동요흥체로 보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역대 왕조의 흥망은 왕조자체의 정치적 흥망에 불과한 것이다”(동아일보, 1925/08/28)라고 하였다. 즉, 한국인들이 일본 강점 하에 놓여있지만, 미국 행정부 사례를 고려할 때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자체는 망하거나 사라질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민족과 행정부의 존속 비교에 대한 적절성을 넘어서 민족불멸의 핵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운집했었다. 이어서 김동성은 워싱턴 군축회의를 취재하고 1922년 1월 14일에 귀국했다(김교신, 1984:171).

심 사례로 미국의 정부구성을 들었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선진적 국가로서 미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진우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5편에서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문제는 “조선민족의 신흥 기본(氣分)”을 새롭게 이취하고 있으며, “조선문제는 동양의 난관이며 세계의 논점”으로 파악했다. 조선반도가 지리적으로 “중일양국간에 개재한 중립지대”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가들이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구상하지 않았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과 일본의 세계적 고립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동아일보, 1925/09/01). 즉 민족자결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문제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나, 오히려 일본이 변화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위기적 상황이 조장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6편에서도 송진우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그 본래의 분명한 연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송진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는 “레닌의 사회주의”가 실현되었고, 다른 한편 “인도적 견지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주장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인도적 견지의 윌슨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발칸반도 국가들, 폴란드, 핀란드, 이집트, 아일랜드가 독립하였고, 인도의 비협동운동의 기운이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25/09/02). 민족자결주의를 통한 3.1운동이 민족의 독립으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송진우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어떻게 민족자결주의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송진우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감성에 기댄 맹목적 우호인식은 아니었다. 7편에서 송진우는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거대한 물적 피해와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이 겉으로는 동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일법안을 통과하고 계속하여 해군대연습의 고압적 시위를 연출한 것은 평소부터 극동방면에 호시탐탐하고 있는 미국이 아니냐”(동아일보, 1925/09/03)라고 언급했다. 송진우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의 단순 인식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점거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우호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 해당할 수

있는 미국의 강압적 외교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우선점을 두며 자강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8편에서 송진우는 미국과 소련의 충돌을 예견하며, 국제적 이념대립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송진우는 19세기가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사상이 확장하는 시기라면 20세기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시대로 파악하며, “자본주의의 표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적로(赤露)”가 태평양에서 충돌하는 불안한 미래를 우려했다(동아일보, 1925/09/04). 특징적인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 질서 재편과 충돌을 예견했고, 그 전에 먼저 미국과 일본이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이은선, 2021:11). 송진우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충돌에 따라 독립에 기회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구미(歐美)의 자유정신과 과학문명을 애호”하지만, 결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독립 보다는 한국인들의 자유에 기초한 “자주적 행동과 자력적 해결”(동아일보, 1925/09/06)에 기초한 독립을 추구함을 분명히 했다.

범태평양회의 참가 후 미국의 서재필과 송진우가 교신한 서신에서 송진우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재필은 송진우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며, “조선민족은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해독하고 인류의 이상사회 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의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 크지만, 후에 위대한 인물들이 송진우처럼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송진우의 고초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송진우에 대해 큰 존경을 표시하며 다시 태평양회의에서의 만남을 희망했다(서재필, 1926/06/12). 이는 송진우가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며 서구 중심의 독립방향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29년 언론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송진우를 꼽았는데, 정치적, 사회적 이슈마다 그가 주목되었고, 이념이나 사상 보다 현실을 더욱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다. 기자가 송진우에게 “미국의 자본이 조선에 많이 들어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좀 나아질까요?”라고 묻자, 송진우는 미국의 자본이 실업과 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우리

를 주체로 한 즉 조선사람의 행복을 위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물질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삼천리, 1929/09/01). 서구의 적극적인 기술과 시장에 대한 발전적 방식은 활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구 활용 방식이 민족의 강한 정신력을 흠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이 잘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송진우의 일관된 서구와 민족에 대한 독립방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931년 9월 윤치호는 『동아일보』와 송진우의 미국에 기대 동아시아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비판적 입장을 일기에 기록했다. 1931년은 만주사변의 발단으로 길림성의 중국인이 한인들을 폭행하고 살해한 만보산사건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윤치호는 『동아일보』가 중국과 일본 간의 분규를 다루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문제에 대해 ‘감독’이나 ‘지도’를 해야 한다며 “입바른 소리”를 했음을 언급했다. 『동아일보』의 언급에 따라 경찰은 일본이 미국보다 힘이 약하다고 암시한 일에 격분하고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기록했다. 윤치호는 “일본이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이 친성적으로 복수심이 강한 일본인의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사실을 언급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며, “송진우씨는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대신 신문 기사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16)라고 하며, 송진우의 미국중심 문제해결을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윤치호의 지적과 달리 송진우의 민족자강 방향은 미국으로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만보산사건이 있는 2개월 후 일본은 1931년 9월 류타오후 폭파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계기로 만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여 만주국을 세웠다. 1932년 3월 『동광』은 대일본 경제봉쇄가 실현될 것인지, 미국의 경제봉쇄는 단독 수행인지, 국제적 공조를 통할지에 대해 송진우에게 질문했다. 송진우는 일본에 대한 다국적 경제봉쇄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만일 경제봉쇄가 시행된다면, 일본의 타격은 막대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을 무릅쓰고,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연맹규약 제16조를 적용하며<sup>4)</sup> 일본에 치명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동광, 1932/03). 이 시기는 1933년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기 이전으로서 일본은 국제연맹의 회원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송진우의 시각은 미국이 단독으로 국제질서에서 특정한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하기 한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제연맹 내에서의 조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한 측면이 있다. 또한 3.1운동시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자유주의적 관점의 국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정 지속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송진우는 1932년 『동아일보』 신년사에서 한국인들의 전진을 강조했다. “정치적 갈등과 산업의 정치상태로 신음하는 구주의 백색인이나, 내란과 기근에 고초를 겪는 아세아의 황색인이나 세계 어느 구석을 물론하고, 인류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문명의 고질은 백일하에 그 추태를 폭로하고 있다. 황금국 아메리카에서도 실직자가 거리를 메우며 빈곤의 인도가 순교적 수난에 혈덕거린다”(송진우, 1932/01/01)라며, 송진우는 정치와 산업 중심의 유럽과 자본주의 중심의 미국을 묘사하며 동시에 이슈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진우와 서재필의 관계는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고, 1934년 서재필이 보낸 서신을 송진우가 공개한 내용에는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세계 사조가 격변함에 따라 미국도 여러 사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전절후(空前絶後)한 최근 5개년의 대공황으로 하여 재래에 비추어보면 거의 혁명적이라 할 만큼 각 계급을 통하여 사상은 달라졌으나 미국의 국민성으로 보아 공산주의나 파쇼정치가 미국 내에 실현될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그러하긴 하나 과거의 모든 조직이 시원치 못하였으니 만큼 더딜지는 몰라도 남을 무시하고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구자본주의제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은 확실무의합니다(동아일보, 1934/10/24).

사실상 모든 다른 회원에게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즉시 모든 무역 또는 금융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교류를 금지한다. 그들의 국가와 계약을 깨는 국가의 국민을 일깨우고, 서약을 깨는 국가의 국민과 다른 국가의 국민들 사이의 모든 금융, 상업 또는 개인적인 교류를 금지한다.

4) 국제연맹규약 제16조: 1항. 12조, 13조 또는 15조에 따른 규약을 무시하고 어떤 회원이 전쟁에 나설 경우,

서재필의 서신을 공개한 송진우의 의도에서 그가 갖는 미국과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산주의를 포괄하는 전체주의는 서구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둘째, 미국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족의 독립과 자강을 강조한 송진우에게 미국은 한국독립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이상적 모델은 아니었다. 앞서 1925년 범태평양회의의 참석 후 밝힌 대로 송진우는 민족의 독립과 자강이 미국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가능한 범위의 여러 모델에서 발전 사례를 취하길 바라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동시에 송진우의 서구지향적 국제정세 인식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는 『동아일보』의 출간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민족운동과 언론의 탄압 속에서 송진우는 각국의 명사들의 회견기(會見記)를 보도했다. “신문독재자”라 불린 송진우(윤덕영, 2015, 13)의 『동아일보』 간행방향은 서구 중심적이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윌로비의 “내부적 단결을 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Fresno Republican지 사장 노웰의 “3·1운동의 대중의 유형은 위대한 흔적이다”, 호주 멜버른대학 교수 로버츠의 “문제의 해결은 민족 자체에 있다”, 미국 신문기자 윌리엄 화이트의 “조선의 전도에는 찬란한 광명이 있다. 낙심은 금물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윌슨의 “고통의 폭발은 각성의 표징(表徵)이다” 등이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보도됐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61-262).

이러한 서구지식인들의 기고문 발행을 통해 송진우는 그들이 한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동시에 독립을 위한 서구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행방향은 일본의 탄압을 감수해야 했다. 1926년 3월 40개국이 조직한 농민단체인 국제농민조합에서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정간, 송진우와 발행인 김철중(金鐵中)은 수감되었다. 1930년 『동아일보』의 무기 발행정지 처분은 1930년 창간 10주년 기념, 미국주간지 Nation 주필 빌라르의 “조선의 형상과 귀보의 사명이 중대”라는 축사에 대한 당국의 삭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조선일보, 1930/04/17). 송진우는 3.1운동 후 미국의 지원

과 독립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자주적 행동과 자력적 해결”이라는 독립방식을 중심에 두고, 미국과 서구에 대한 비판적 우호인식을 나타냈다.

### 3.2. 소련: 반공과 협력의 공존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확대되었고, 한반도까지 영향력을 뻗었다. 1920년대 초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이 출범했고, 결국 1925년 4월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다. 조선공산당의 공산주의 중심의 국가 건설 운동이 전개, 격화되는 중국의 국공내전, 그리고 코민테른의 ‘계급 대 계급’ 전술에 따른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 속에서 송진우는 이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송진우는 일제의 식민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문명개화론, 서화론 등 서구 근대 사상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했으며, 소련과 코민테른을 추종하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민족주의는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족적 주장인 동시에 전 세계적 운동성을 갖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확산되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경계와 대립으로서의 글로벌한 차원의 자유주의, 반공주의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윤덕영, 2015:7-9). 공산세력의 혁명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송진우는 1922년 김윤식(金允植) 사회장사건 이후 신간회의 창립과 전개, 해소과정 등 20여 년간 공산주의와 대립했다(윤덕영, 2011:254-255).

송진우는 동아일보사 경영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에 맞서야 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지방에 흩어진 일부 물지각한 ‘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조사보도”했는데, 여기에 반감을 갖는 인물들이 『동아일보』 비매동맹(非買同盟)을 일으켰고, 송진우를 사회주의 세력의 반대파 대표로서 집중 공격했다. 또한 송진우가 주재한 ‘재외동포 위문강연’<sup>5)</sup> 당시 확보

5) 1922년 2월에는 재외동포 위안회를 발기하여 해외에서 고생하는 교포를 위해 국민운동을 일으켜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강연회를 갖고 수익금을 해외동포를 위해 쓰기로 했다 동아일보사의 이사업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85개 지역을 돌며 순회강연이 진행됐고, 입장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3만 5천여 원에 달했다. 이 수익으로 동아일보는 북간도, 만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의 해외교포 2세 교육사업에 사용한 성공적 사업이었



한 의연금과 약소민족운동을 돕기 위해서 소련공산당이 장덕수에게 송금했다는 자금을 장덕수가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해외유학을 떠났다는 등 소문을 날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은 송진우를 공격하는 구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48-249)이 되었고, 송진우는 1924년 『동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송진우의 소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감정적 판단보다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1924년 글에서도 송진우는 중국과 비교해 강한 민족의 단결력을 통해 러시아가 개혁을 지속하면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보라. 대전 이후의 러시아와 독일 양국이 전에 없는 변란과 개혁을 계속하면서도 의연히 자체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것은 양 민족의 단체적 훈련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을 간파할 수 있으며 중국과 미국(멕시코)이 금일까지 만성적 혁명병에 걸려서 온갖 추태를 연출하는 것도 개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단결력이다. 환언하면 단결력은 각 개인의 심력이다. 심력, 곧 봉공심(奉公心)이 발달된 민족은 강자가 되어 우자(優者)가 되고 봉공심이 박약한 민족은 약자가 되어 천자(賤子)가 되는 것이다(송진우, 1924/04/01).

뿐만 아니라 1925년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송진우는 공산화된 소련을 무작정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물론이고 공산주의 소련까지도 약소민족을 돕는다면 어떤 계기와 기회를 포착해서 일종의 공동보조도 가능함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견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만이 그의 당면 목표임에서 출발한다. 고하는 소련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고문에서 소련의 편을 들어, 그들로 하여금 일본에 반감을 갖게 하도록 노력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281) 이는 민족의 당면한 목표 중 가장 우선에 독립을 두고 이하의 조건들은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대중으로 들어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보

다(정진석, 1997:39).

수적 민족주의자들의 행보를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것으로 비판했다(박태균, 1994:30). 송진우는 소련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나타낸다. 1931년 송진우는 한국인들의 신문화 건설을 위해서 문맹비율 감소가 핵심임을 강조했으며, 상당한 경비로 학생들에게 문자 보급운동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중인 “‘문맹 타파’ 운동이란 표현은 매우 치욕적이며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문명이 발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과거부터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문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악한다. 이와 반대로 “인문정도가 낮고 정치적 시설이 고도에 이르지 못한 미개국이나 야만민족 사이엔 문맹”(송진우, 1931/09/01)이 존재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이 운동의 배경에 서구를 문명적으로 발전한 국가군으로, 소련은 문맹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개한 국가로 파악하는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송진우의 활동에서는 상이한 이념적 지향을 갖은 인물이라도 민족독립을 위한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전후 공산당은 조직을 갖추었고, 박헌영(朴憲永) 등은 농민운동과 동맹파업을 선동했다. 1927년 발족된 신간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진영이 공동전선을 펴고 일본 제국주의 타파를 강조했다. 당시 고하는 공산당원이 분명하더라도 동아일보사에 입사시키는 것을 허락했고 이를 사상전환을 위해 활용했다. 그 대표적 인물은 김준연(金俊淵)이었는데, 그가 ML당(마르크스레닌당)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송진우는 김준연의 체포를 막기 위해 도왔고 이러한 인연은 그들의 관계를 지속하게 했다(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2022:424-429).

신간회 내에서 공산진영과 민족주의진영의 대립은 강화되며 송진우는 공산진영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송진우는 신간회가 해체되자 민족주의 조직체를 사회주의 이론으로 해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고(이종은, 2016:280), 언론은 “소시민적 자유주의로서 부국론과 분배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신진 맑스학도에게 배격을 받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유광렬, 1932/09/01)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월간 『성서조선』 발행인이자 손기정(孫基禎)의 양정보고 시절 마라톤 코치였던 김교신(金敎臣)은 송진우가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들을 민족진영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했다(김교신, 1984:245). 송진우가 민족의 역량집결과 독립을 위해 사상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인물과도 협력하는 방식은 소련에 대해 표면적으로 사상적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협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와 유사한 것이었다.

### 3.3. 중국: 중국식 전통질서 부정과 친교의 강조

송진우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은 소련보다 훨씬 분명한 것이었고, 중국적 방식은 민족의 독립 방향이 아님을 수차례 확인했다. 1921년 『개벽』에는 10월 간도신명학교에서 진행된 문화를 향상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송진우의 강연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진우는 교육에 대해서 “세계인으로 조선을 관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민족의 품성과 지식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언급했다.

조선인의 결점은 신앙심의 부족이라. 그럼으로 이 사회를 개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종교의 진흥 ... 도덕적 관념을 견착케 하며 또는 사상의 안전을 기도하는데 있어서는 신앙심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유치한 사회의 신앙은 왕왕히 소화불량이 되어 돌이켜 그 사회의 고질폐습이 되나니 이것은 터키인의 회교와 중국인의 유교와 인도인의 불교로 보아도 역력히 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사회를 물론하고 근본적으로 그 민족의 품성을 도야하며 그 지식을 발전치 아니하면 어찌 그 미습을 타파하고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강인택, 1921/11/01).

송진우는 종교가 중요하지만 중국의 유교와 같은 “유치한” 신앙은 사회의 폐습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송진우는 문화의 향상을 위해 첫째, 바람직한 종교로서 분명하게 기독교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출현한 종교에 대한 비판하는 측면에서 서구 기독교를 민족 발전을 위해 흡수해야 할 진보된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송진우는 정치혁명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정치혁명은 현대정치의 근본사상으로서 일반민중의 의사를 기초한 정치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치가 아니고서는 천민정치나 중우정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실례로서 중국의 현상을 보면 될 것이라 언급한다. 이에 대해서도 송진우는 중국의 정치수준을 낮게 평가하며, 서구민주주의 사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강인택, 1921/11/01).

셋째, 송진우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실업의 진흥을 꾀했고, 언급한 세 가지, 즉, 종교의 진작, 정치의 혁신, 실업의 진흥은 교육장려를 통해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야말로, 동양에 있어서는 동양의 모든 문명을 창조하며 전파하던 사실이 있었고, 세계에 있어서는 문명의 최대 이기가 되는 철선(鐵船)과 活版(활판)이 모두다 우리의 뇌혈(腦血)로부터 착출된 것”(강인택, 1921/11/01)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우는 종교, 정치, 경제에서 중국의 국가운영 방향을 한국인들이 모델화해서는 안되며, 서구의 종교와 사상에 기반 할 것을 강조했고, 한민족의 세계적인 우수성과 민족자강을 위해 교육에 집중할 것을 언급했다.

송진우는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만 중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어서 영향력 감소를 분석했다. 김준연은 송진우가 전해준 에피소드를 회고했는데, “한일합병 당시 어느 일본 명사가 런던대학 정치학 교수인 한 헝가리인을 만났었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민족이 너의 일본민족보다 더 문화적으로 진보된 민족이라는데 그를 일본이 합병한 것은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문화민족인 한국민족은 전력을 다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할 터이니 백방으로 일본에 반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주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니 그러자면 러시아와 충돌해야 할 것이고 만주를 확보하려고 하면 화북지역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니 그러자면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그 보복을 30년 후에 받게 될 것이다”(김준연, 1957:174-180)라는 내용이었다. 송진우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에 미국의 개입에 다른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았고,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가 아닌 주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1925년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도 송진우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국문제는 “동양정국의 일대위험”이자 동시에 “중국을 일대미인(一大美人)”으로 칭했다. 중국의 무한한 자원에 대한 이권 경쟁에 따라 영국이 경쟁에 추가로 참가했고, 미국이 탐내며, 소련이 원조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소비에트의 내부 완비가 완성되는 시점, 미국 해군의 확장계획이 완성되는 시점, 그리고 영국의 군항계획 확립시점이 도달할 경우 중국문제가 태평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동아일보, 1925/09/04). 송진우는 이미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지 못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거대한 자원과 강대국의 치열한 이권 대립이 한 반도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었다.

1930년 『별건곤』에서는 국제상황이 세계대전도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의 발칸, 메소포타미아, 극동으로의 세력 확대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과 이탈리아, 미국까지 대항하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력화하여 전 세계적 원료와 상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팽창에 대항하는 기존 자본주의 열강, 영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세계대전의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았다. 국제환경의 위기국면에 따라 언론은 열강의 자본주의의 충돌에서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며, 송진우에게 세계적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진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계급 전쟁은 그것이 일어날 만한 국제적 정치형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밖에 자본주의 열강을 말하더라도 현재의 정세가 전년의 대전 전과 흡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닳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 전에는 피차 전쟁을 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폭발이 용이하였지만 지금은 대전에서 한번 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려 합니다 ... 국제연맹이라든가 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군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노력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가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 공산군이 한 세력을 잡고 대두를 하였으나 그것으로써 전 중국이 바로 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반동 세력도 세력이려니와 열강의 주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앞으로 절대 자주국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오랫동안 열강의 이권시장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열강간의 충돌이 전연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중국을 무대로 한 열강의 활동과 충돌이 제2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 역시 피하려 들겠지요. 하여간 지금의 정세만 가지는 제2의 세계대전이 오래지 않아 오리라는 단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별건곤, 1930/09/01).

송진우의 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선 제1차 세계대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1차대전의 동기와 여파를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난다. 이미 1930년대 국제적 대립상황은 새로운 다층적 측면으로 심화하고 있었지만, 송진우는 위협적 측면만 집중하기 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파국적 결말에 대한 교훈으로 새로운 평화적 구조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 인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중심적 파국 또는 이념적 대립의 전쟁에 대해서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던 송진우는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국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결국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이 발생하며 송진우의 예측은 무기가 실리고 있었다.

앞서 윤치호는 만보산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어 송진우의 미국 중심적 인식을 지적했고, 실제 송진우는 중국문제에 대해 냉철하며,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 간 폭력적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일본의 간계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보도하는 것에 극도로 조심했다(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2022:494-495). 송진우는 독립 후 중국과의 친선을 위해서 중국인에 대한 폭력 자제를 요청했다. “동포여 우리가 조선에 와있는 중국 사람 8만 명에게 하는 일은 곧 중국에 있는 100만 명 우리 동포에게 돌아옴을 명심하십시오 ... 중국은 현재 100만의 조선 동포가 우접해 사는 나라요, 또 그와 가장 밀접하고 친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민족 백년의 복리를 위한 것이거든 무책임하고 일을 좋아하는 자의 헛된 선전에 미혹하여 인천, 경성, 평양 등지의 대참극을 일으킨 것은 조선민족의 명예에 영원이 씻기 어려운 누명”이 될 것임을 비판했다(송진우, 1931/07/07). 후에 장개석은 친인선린(親仁善隣)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진 은패와 동아지광(東亞之光)이라고 쓴

족자를 감사의 뜻으로 송진우에게 보냈다(김교신, 1984:274).

1932년 4월 송진우는 상해사변과 만주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로 인해 중국이 큰 손실을 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국민당, 광동파, 공산당 간 내부 투쟁이 통일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중국이 “외교정책적으로 자립의 기초를 다지겠지만, 친미, 친영의 경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했다. 또한 중국의 핵심 권력으로 국민당이 지속될 것인데 이유로서 공산당이 주도 정당으로 수립된다면, 자본주의국가 전부의 적이 될 것이기에 불가능하며, 4-50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당정부가 계속될 것이고,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이 분할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국민이 자각하고 일치 단결해야 선처하면 국제관이나 분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문귀재, 1932/04/01). 송진우는 중국에 대한 신뢰와 국제적 위상에 의구심을 표출했으나 급박한 사태에서 비판의 입장을 삼갔다. 또한 한국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초래되는 국제적 불안 상황을 경계하며,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확장의 한계와 서구민주주의 확대를 예상했다.

### 3.4. 유럽: 자유사상의 모태 인식과 확장적 아시아정책의 경계

송진우는 유럽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견지했을까? 1925년 “자유권과 생존권 上”에서 송진우는 인류문화의 진보는 자유권 발전시대로부터 생존권 확충 시기에 진입했다고 보았다. 18세기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되어 러시아혁명을 비롯해 점차 그 조류가 확장되었고, 19세기를 자유권이 발전의 전성시대였다면, 20세기는 생존권 확충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 시기로 구분했다(송진우, 1925/01/02). 송진우는 자유권과 생존권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유권이라하면 언론·출판·집회·신교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혁명 당시 인권선언서에 의하여 천명되었고 또한 그 후 속출된 각국의 헌법으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박애·평등의 대의상은 정치적 자유 곧 형식적 자유에만 표현되었고, 그 이면에 있어 실제적 자유 곧 경제적 방면에서의 철저한 보장이 없었

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것은 박애·평등적 대의상의 자체적 결함 보다는 프랑스혁명 당시에 이상을 고조하였던 혁명군이 그 입장과 환경이 중산계급의 정저(井底)에 잠재되었던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과거의 특권계급에 부속되었던 모든 자유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하며 보장하면서도 경제방면에서는 의연히 자기네의 입장과 환경에 편리하도록 노력하였다 ... 정신적으로 각개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각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원리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있으랴(송진우, 1925/01/13).

자유권과 생존권에 대한 송진우의 주장은 영국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1910년대 일본 유학을 거치며 다이쇼데모크라시 지식인들로부터 수용된 것이었다. 자유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구했던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문제의식이었음을 밝혔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회주의를 계급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계급 이익에 반대하고,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종의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사회주의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회운동은 소비에트 러시아 방식을 예외로 하고 서구의 노동당과 일본의 무산정당에서 보이는 의회주의적, 합법적 운동방식을 합리적 운동으로 상정했다(윤덕영, 2016:21).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송진우의 유럽인식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속성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긴 시간 혁명을 거치며 인류의 자유권을 발전시켰고, 노정된 한계를 조정하며 자유권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며, 인류의 생존권리를 확대하게 한 사상적 모태로 서구를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송진우의 유럽에 대한 인식은 선호의 가치판단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지역이었고, 사상의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필요성의 관점을 유지했다.

1925년 송진우는 유럽의 정치지형을 분석했다. 유럽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동아시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이에 반해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로, 동아시아에 전통적 점진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바로 미국과 연합해 영일동맹을 파괴하고

동시에 미국의 세력을 태평양 방면에 집중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영국의 “노활한 극동정책”(동아일보, 1925/09/04)을 지적했다. 송진우는 사상적 측면에서 유럽의 인류에 대한 기여를 분명히 인식하지만,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유럽지역의 아시아에 대한 영토적 위협을 경계하는 측면이 있었다.

송진우의 유럽인식 중 특징적 부분은 동유럽에 대한 인식도 찾아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앞서 김준연의 송진우 회고에서도 송진우는 헝가리인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특히 송진우의 동유럽에 대한 언급은 주로 민족의 단결에 대한 방식과 연계되어 있었고, 이는 송진우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서 경제적 파멸과 민족의 원기 상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이 합리적 방향으로 진전되고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민족적 지식도 향상되고 있고 따라서 “경제의 파멸과 정치의 파멸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의 단결이며 … 단결의 훈련이 없으면, 아무리 주의(主義)가 신성하고 사상이 철저” 하더라도 목적인 일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송진우, 1926/02/01). 송진우는 민족의 단결을 구호로서가 아닌 동유럽 사례를 통한 실제적 방식을 제안했다.

송진우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Sokol)운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민족 단결과 자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소콜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 속해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이 민족의 훈련을 위해 고안해 낸 단체 운동방식으로서 1930년대 초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운동에 적용하려 했다.<sup>6)</sup> 특히 1933년 4월 남궁역(南宮驛)이 십자가당을 결성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을 전파하려 하였고, 이로인해 1933년 11월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관련 인사들이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동아일보』는 다음의 논설을 보도했다.

소콜운동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을 살려낸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 육체적으로 쇠약한 민족은 정신적으로 건전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

6) 일제시대 한국인들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양준석(2021).

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족적 보건 체육의 보급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전조선 체육단체의 통일을 갈망하는 바이다 … 체육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오직 스포츠맨십 정신을 굳게 파악하고 스포츠맨십으로써 생활의 지표로 삼기를 바라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아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것이다(송진우, 1934/03)

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송진우의 유럽에 대한 인식이 인류의 사상적 근간을 태동한 서유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국에 주권을 제압당한 동유럽 약소국들의 사정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이 소콜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압박을 감안하면서도 민족의 단결 방식을 구체화시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해방기: 서구 중심의 민주정체 도입 추구

### 4.1. 국가수립을 위한 서구 중심 표준의 도입

해방을 앞두고 송진우는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군하기 이전부터 국제정세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이오지마의 일본군 전멸, 오키나와 미군상륙, 동경, 오사카의 미군 대폭격으로 일본이 궁지에 몰린 1945년 초의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사무관 장철수(張徹壽)가 송진우를 방문했다. 장철수는 웰키(Wendell Willkie)의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송진우에게 건넸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특사로 소련을 방문한 웰키의 소련 실태 조사보고서였다. 이 문헌에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에 관한 극비자료가 포함되었고, 장철수는 송진우에게 세계정세와 대서양헌장부터 포츠담협정까지 국제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 420-421). 이는 송진우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그 이후 국제정치의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송진우는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했다. 9월 7일 결성된 국민대회준비회는 임시정부 절대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구호로 이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연합군 환영준비회를 준비했다. 국민대회의 4가지 결성 강령은 1) 연합국에 대한 감사, 2) 대내외의 민족 총역량, 3) 임시정부의 법통지지, 4)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 정치 실현이었다. 강령의 의미는 첫째, 좌익 연립정부 조직인 건준과 인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었다. 둘째 국민대회를 통해 민족총역량을 모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있는 정권 조직을 창출하고 신국가의 의회조직의 모태를 만들려 했다(윤덕영, 2011:266-267).

국민대회준비회의 결성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송진우의 미국 중심 국제정세 인식은 1945년 9월 16일 한민당의 수석총무로 정치활동 시작과 함께 한민당과 미군정의 제휴를 우선적으로 성사시켰다. 송진우는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에서 좌익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남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독립시키기 위해 미군정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진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김학준, 1996:58). 박태균은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정이라는 정권기관을 설치하고 미군이라는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정권임을 내세우게 되자, 송진우와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정에 다가서게 되었음을 기술한다(박태균, 1994:31). 1945년 10월 31일 송진우는 하지(John R. Hodge) 중장을 방문하였고 하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요망했다.

우리는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하러 왔다. 우리는 영토적 야심이 있는 것도 아니요,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식량을 갖다 먹고 우리 의복을 갖다 입는다 ... 우리 미국은 어떤 사상을 돕고 어떤 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특점이 있다. 정당한 민주주의가 왜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반민주주의 친일파 매국노들의 발호에 맡겨 두는가 ... 조선사람이 결속하여

독립할 만한 힘을 배우면 이제라도 나는 독립을 승인하겠다 ... 조선의 지식계급이 정치공론만 하지 말고 대중 속에 뛰어 들어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친일파, 무뢰한, 파괴자, 일본인들에게 우롱되지 말기를 바란다(자유신문, 1945/11/05).

당시 미국은 한반도 이남에 점령군으로 진군한 것이 아니며, 독재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틀만 한반도에 마련된다면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는 뜻을 송진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미군정이 이 내용을 송진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송진우가 미군정의 정책적 방향을 한국인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통로의 역할로서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귀국 과정에서 송진우의 역할은 중요했다. 임정요인들이 개인자격이나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송진우를 비롯한 한민당 주도세력이 미군진주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하지와 참모들에게 임정의 귀환을 촉구를 주장한 결과였다(윤덕영, 2011:275). 1945년 12월 19일 임정귀국 환영대회에서 러취(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부문의 재부흥'이 유럽에서의 핵심과제이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쟁 보다 부흥에 힘쓰기를 바라는 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송진우는 월슨의 "1919년 민족자결의 시조에 따라서 3천리 방방곡곡에 독립만세의 소리에 호응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한국인을 세계에 알린 계기라고 소개했다. "윤봉길 선생, 김구 주석, 이승만 박사를 위시하여 정부 제위의 우리 민족에게 준 공헌" 등 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하지만 현재 영토가 분단, 연합군의 분할 군정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1919년 이래 우리 민족의 정치력의 본류로서 신념 해왔던 임시정부가 중핵"(동아일보, 1945/12/20)이 될 것을 가장 중요한 강조점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송진우는 미국의 영향력과 36년간 임시정부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활동을 연계하여 국가건설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후에 진행된 송진우의 한민당 정견발표는 송진우가 서구지향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출했다. 우선 송진우는 정치적으로 민주정체를 수립하여, 일계급의 독재가 아닌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민중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민중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제적 자유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대중복리 증진을 강조했고, 독재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했다(동아일보, 1945/12/23). 이는 공산주의 통제적 경제정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라기 보다 이전 일본의 토지정책에 있어서 불합리한 토지착취 방법을 활용하여 경작권이나 조선인들의 토지소유에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식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현장 준수를 통한 세계평화확립을 강조했다. 민족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강조와 동시에 전 세계 민족과 자유, 평등, 평화, 진보를 결속하기 위해 국제현장 준수를 기초로 하는 외교정책 수립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동아일보, 1945/12/23). 이렇듯 송진우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반대하며 서구적 민주정체의 도입과 국제현장 도입 등을 통한 서구적 표준에 독립된 한국을 맞추는 과정을 시도했다.

#### 4.2. 소련 점령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일제시기 소련과 공산주의 대해서 비판과 협력 동시에 추구했던 송진우는 국가수립을 위한 주요 시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대회준비회 개최 직후 1945년 9월 8일 프랑스 공산계열 기자와 회견했는데, 송진우가 “프랑스 공산당은 어느 국가에 속해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기자는 “프랑스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에 송진우는 소련 공산당의 지휘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기자는 프랑스 공산당은 “프랑스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공산당이며, 소련을 위한 공산당이 프랑스에 있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b:453-455). 이러한 송진우의 질문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국익을 도외시하고 이념적 편향에 따라 마치 소련을 조국처럼 여기는 조선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송진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에 불참하고 비판적 관점을 나타

낸다. 그의 비판적 논지는 “첫째, 인공이 혁명세력으로써 일본군력(日本軍力)을 거파(擧破)하고 세워진 것이라면 그대로 승인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인공은 일본세력 밑에서 그의 후원으로 생긴 것이므로 정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공 수립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는 객관적 정세 하에서 자주독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적색정권을 수립해서는 결코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서울신문, 1945/12/09, 윤덕영, 2011:262에서 재인용). 해방 직후 송진우는 미소군이 진군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부수립의 합당성과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관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1945년 10월 2일 미국 OSS와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했던 김학규(金尙德)는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참고를 위한 진술에서 송진우가 “임시정부의 한국 귀환은 수많은 한국민들의 바램”이라 했음에 주목했다. 김학규는 이러한 송진우의 성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민들은 이데올로기적 혼란에 빠질 것이며, 공산주의 전파에 절호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한국이 공산주의에 의해 정복된다면, 극동에 대한 미국의 국가정책 그리고 세계평화에 불행이라고 파악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송진우의 임시정부 신속 귀국 메시지는 임시정부의 온전한 귀환과 더불어 명확한 반공의 입장으로 읽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1945년 12월 17일 주한 정치고문대리 랭던(William R. Langdon)이 주일 정치고문대리 애치슨(Dean Acheson)에게 보낸 문서에는 송진우가 견지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송진우와 서울 주재 소련영사 폴리얀스키(Alexander Polianski) 간 회담에서 송진우는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그리고 38선 이북에서의 한국인 탄압에 대해 항의했다. 폴리얀스키는 “남한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남한의 공산당과 아무런 연락관계도 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오히려 소련을 향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7) 송남현은 『해방전후사 1』에서 송진우가 건준에 협력하지 않은 이유로 1) 송진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여론형이 주도하는 건준에 들어가면 보조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 2) 중경임시정부가 들어오면 합작

하여 새 정부 수립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 3) 김성수 중심의 여러기관 인사들을 총 망라하면 국내 다른 세력에게 승리하게 될 것으로 파악했다(진덕규 2011:123).

물었다. 이에 송진우는 “북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시오”<sup>8)</sup>라고 답할 정도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1945년 10월 미군정은 한민당 수석총무인 송진우에게 경무국장에 임명할 한국인 후보자를 추천을 요청했고, 송진우는 조병옥을 추천했다. 조병옥은 공산주의가 노동자와 농민을 내세워 계급투쟁을 선전하지만, 실제 이익을 얻는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뿐임을 비판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위성국이 된다면 한국은 더 열악한 후진사회로 후퇴할 것이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진덕규, 2011:205-206). 이러한 조병옥을 경무국장에 추천하는 송진우의 인식적 배경에는 해방 직후 송진우가 국익을 도모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과 모스크바와의 연결성을 경계했고, 미국 지향의 민주국가 수립에 방점을 둔 것과 연결된 것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 결정 후 송진우의 죽음과 깊게 연관된 탁치 관련 발언도 그의 국제정치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탁치반대전국총동원위원회에서 다른 임정요인들이 반탁강경 입장을 나타낼 때 송진우는 임정의 방식이 미군정과 충돌해야 하고 미국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역설했다(동아일보, 1972/02/17;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a:325-326). 또한 “반탁운동은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아무런 자체적인 힘과 준비도 없이 무조건 미군정까지를 적으로 돌리면 소련이나 공산계열은 미군정을 역이용해서 일시적 합작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며, 무조건적 반탁이 공산화로 이끌 위험성을 제기했다(이철승, 1975/08/28).

일제시기 국제지역에 대한 감정적 선호를 배제하며, 민족의 독립과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유지했던 송진우에게 있어서 무조건적 반탁지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송진우는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서구 중심의 국가기틀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소련 공산주의의 확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한국의 공산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진우의 발언은 국가수립을 위한 현실적 필요 요소와 국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판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혼돈의 해방정국에서 일제시기부터 긴 시간 쌓여온 송진우의 국제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조건적 반탁에 대한 반대’가 갖는 의미는 쉽게 이해받지 못했다.

## 5. 결론

이 연구는 일제시기부터 해방기 송진우가 견지했던 국제지역인식을 1차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송진우는 서구적 선진사상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민족자강의 방식을 습득했다. 1919년 3.1운동에 있어서 송진우는 월슨의 민족자결원칙의 깊은 영향과 미국중심의 국제연맹에 의한 ‘조선’의 독립을 기대하며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송진우는 3.1운동 이후 『동아일보』 사장 취임시기를 전후로 미국 중심 인식에서 보다 확대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출한다.

송진우는 1920년대 초 김동성의 만국기자대회 파견, 장덕수의 미국특파원 파견, 하와이조선인을 위한 강연회를 진행하고, 이승만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실망과 별개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호응하는 독립운동 방향을 유지한다. 범태평양회의의 참석 후 국제정세를 정리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기고문에서 미국사례를 통한 민족의 불멸성,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지속성과 실제 독립 사례들에 대한 인지, 미국중심 질서에 대한 기대와 경계를 나타낸다. 송진우는 3.1운동 후 미국의 지원과 독립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자주적 행동과 자력적 해결”이라는 독립방식을 중심으로 두고, 미국과 서구식 질서의 우호적 인식을 나타냈다.

송진우는 일제시기 공산주의 계급전술의 의도를 파악했고, 신간회 활동 등에서 공산세력과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과 자강 목표의 차원에서 소련에 대한 불편 인식보다는 소련의 단결성에 귀감을 나타냈고, 경우에 따라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의 의사

8) 러시아 공사관 직원과 송진우 등 한민당 대표들 간의 회담 내용 보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in Korea(Langdon)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Acheson), 1945.12.17.



를 표시했다. 민족자강을 위한 모델에 있어서 송진우는 중국적 방식을 낮게 평가했다. 종교, 정치, 실업분야에서 중국의 국가운영 방향이 아닌 서구의 종교와 사상을 추구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만보산사건과 같은 유사시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전환되는 것에 유의하며, 친선을 강조했다. 송진우는 유럽에 대해서 자유권을 발현한 인류의 보편적 사상을 제공한 모델로 인식했고, 민족의 단결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콜운동에 주목했다.

해방 후 송진우는 연합군 지원에 의한 정부수립을 지향했고, 한민당 수석총무로서 미군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소통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1919년 민족자결에서 출발했음을 선언했다. 송진우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반대하며, 서구적 민주정체의 도입과 국제현장 도입 등을 통한 서구적 표준에 독립된 한국을 맞추는 과정을 시도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했고, 공산주의정부 수립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북에서의 소련군 진주와 탄압에 항의하고 소련군 철군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구 중심의 국가수립 추구하고 공산화에 대한 우려에 기초해 무조건적 반탁 지지를 받아들이지 않던 송진우의 인식은 혼돈의 해방공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송진우는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적 목표 보다 민족의 이익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주의에 기반한 3.1운동과 독립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경계하지만 독립을 위해서 협력의 공간을 마련했고, 중국의 종교와 정치를 따르기를 거부했지만,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으며, 유럽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의 권리와 사상의 흐름을 전개한 지역이지만, 아시아에 대한 확장적 정책을 경계했다. 송진우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국제정세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민족과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인물이었다. 100년의 시간적 차이와 달라진 한국의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강대국들의 이익과 이념의 충돌점(Clashpoint)에 위치하며 여러 갈등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며,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도모했던 송진우의 고민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 참고문헌

- 강인택(1921. 11. 01). 講演月旦, 개벽, 17.
-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1965). 고하 송진우 선생전, 동아일보 출판국.
-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90a). 巨人的 숨결: 古下宋鎮禹 關係資料文集, 동아일보사.
-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90b). 獨立을 향한 執念: 古下宋鎮禹 傳記, 동아일보사.
-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2022). 獨立을 향한 執念: 고하 송진우 일대기,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국사편찬위원회(2006). 한국 현재 상황에 대한 김학규(金學奎) 대장의 진술 (2급 비밀) 1945년 10월 2일, 대한  
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 한국광복군 IV,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2015). 1919년(기미년) 1월 18일, 윤치호 영문 일기 6,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2016). 1931년(신미년) 9월 21일, 윤치호 영문 일기 8, 국사편찬위원회.
- 권이혁(2007). 온고지신: 우강(又岡)에세이 제Ⅱ집, 신원문화사.
- 김교신(1984). 한국의 인물 7: 송진우, 계성출판사.
- 김기주(1997). 고하 송진우의 민족교육사상과 교육활동, 전남사학 11.
- 김준연(1957. 12). 宋鎮禹 : 日帝必亡論과 東亞日報때의 이야기, 新太陽 6(12).
- 김학준(1990). 古下 宋鎮禹 評傳: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 김학준(1996). 해방공간의 주역들, 동아일보사.
- 동광(1932. 03). 經濟封鎖 實現 可能性 4(3).
- 동아일보(1921. 10. 15). 本報의 過去를 論하여 讀者諸氏에게 一言을 寄하노라.
- 동아일보(1934. 10. 24). 在米 徐載弼氏 病으로 療養中.
- 동아일보(1945. 12. 20). 임시정부환영사.
- 동아일보(1945. 12. 23). 민족을 영구유지.
- 동아일보(1945. 12. 29). 최후까지 투쟁하자 국준위원장 송진우씨 담.
- 동아일보(1972. 02. 17). 反託과 贊託의 회오리-古下 宋鎮禹의 암살.
- 동아일보(1983. 03. 22). 비화 미군정 삼년 67, '信託'의 소용돌이.
- 리차드 로빈슨(1988). 미국의 배반: 미군정과 남조선, 과학과 사상.
- 문귀재(1932. 04. 01). 受難의 中國은 어디로, 破産? 再建? 東光 32.
- 박명림(2016). 근대를 향해, 국민국가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송진우의 길, 중용적 진보의 길,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박명수(2020. 01. 15). 해방 직후 자유대한민국 건설의 기초가 된 전라도 정치가 송진우, 미래한국.
- 박지향(2010).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 박태균(1994). 현대사를 베고 쓰러진 거인들, 지성사.
- 별건곤(1930. 09. 01). 새로운 세계적 불안, 풍운점급(風雲漸急) 제이세계대전쟁? 32.
- 삼천리(1929. 09. 01). 名士의 멘탈테스트(其三),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 2.
- 삼천리(1940. 09. 01).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진 폐간 진상과 금후, 12(8).
- 서울신문(1945. 12. 09).
- 서재필(1926. 06. 12). 좀 더 잘 살 길은 精神物質의 合作에서. 동아일보.
- 송진우(1915). 사상개혁론, 학지광 3(1).
- 송진우(1924. 04. 01). 무엇보다도 '힘' - 最近의 感 -, 開闢 5(4).
- 송진우(1925. 01. 02). 自由權과 生存權 上, 동아일보.
- 송진우(1925. 01. 13). 自由權과 生存權 中, 동아일보.

- 송진우(1925. 08. 28-09. 06).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一 - 十, 동아일보.
- 송진우(1926. 02. 01). 現下 朝鮮에 대한 憂慮點과 喜悅點, 開闢 66.
- 송진우(1931. 07. 07). 이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 동아일보.
- 송진우(1931. 09. 01). 조선신문화건설 삼개년계획, 삼천리 3(9).
- 송진우(1932. 01. 01). 노력전진 갱일보, 동아일보.
- 송진우(1934. 03). 역센 朝鮮, 굳건한 民族, 新東亞.
- 신복룡(2017). 인물로 보는 해방정국의 풍경, 지식산업사.
- 양준석(2021). 일제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동서연구 33(3).
- 유광렬(1932. 09. 01). 新聞獨裁者 宋鎮禹論, 삼천리 4(9).
- 윤덕영(1999). 고하 송진우의 생애와 활동, 한국현대사인물연구2, 백산서당.
- 윤덕영(2011).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지지원, 한국사학보 42.
- 윤덕영(2015).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위상, 고하송진우선생 서거7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발표문.
- 윤덕영(2016).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이승만(1924. 04. 23). 自由와 團結, 동아일보.
- 이은선(2021).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범태평양회의 참석(1925년)을 전후한 조선과 일본과 세계에 대한 인식, 고하송진우선생 탄신131주년추모식 강연문.
- 이종은(2016). 문화적 민족에서 정치적인 네이션으로,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이철승(1975. 08. 28).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 자유신문(1945. 11. 05). 송진우, 하지를 방문 요담.
- 정진석(1997).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古下 宋鎮禹, 동서연로 9.
- 조선일보(1930. 04. 17). 同業東亞日報 突然無期發行停止.
- 조선일보(1995. 05. 29). 거대한 생애 李承晚 90년 <31> 신탁통치 반대.
- 진덕규(2011). 권력과 지식인: 해방정국에서 정치적 지식인의 참여논리, 지식산업사.
- 채만식(1931). 동아일보사장 송진우씨 면영, 彗星 1(1).
-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in Korea(Langdon)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in Japan(Acheson).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olitical Adviser in Japan Lot 57-F103, 800 Korea: Telegram.  
1945. 12. 1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